



What's new

Connect for Impact

제 62 호 | 2023.07.07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기 임원 승진인사...21 명 임원 승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최초로 글로벌 IB 한국대표 출신 M&A 전문가 영입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기 임원 승진인사…21 명 임원 승진

파트너 15 명, 수석위원(Executive Director, ED) 5 명…총 21 명 임원 승진
파트너 젊어졌다…여성 임원 2 명 포함, 승진자 약 60%(12 명) 80 년대생
디지털(digital), 기후대응(climate) 등 시장 선도 비즈니스 확장 및 다양한 전략적 제휴 추진,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것…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6 월 1 일자로 파트너 16 명 및 수석위원 (Executive Director, ED) 5 명에 대한 2023 년 정기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성과에 기반한 임원 승진을 단행했다”며 올해 승진인사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산업재편, 규제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디지털(digital), 기후대응(climate)
등 딜로이트가 선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임원을
발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기 임원 인사에는 여성임원 2 명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임원 승진의 약 60%(12 명)가 80 년대생인 것이
특징입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올해 정기 임원 인사를 기점으로 차별화된 인재 혁신 전략, 통합된 파트너십,
딜로이트 글로벌과의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제휴,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1 일자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인사와 전략 총괄 임원도 신규 선임했습니다. 신임 인사총괄 임원(Chief Talent
Officer, CTO)에 유병문 파트너를, 신임 전략 총괄 임원(Chief Strategy Officer, CSO)으로 정태원 파트너를
선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정기 임원 승진인사… 21 명 임원 승진

노무라금융투자 투자금융부문 (IBD) 신용식 前 한국 대표 전문위원 영입
4 대 회계법인의 재무자문본부가 글로벌 IB 의 한국대표 출신을 영입한 첫번째 사례
외국계 IB 수준의 M&A 자문서비스 역량 구축, 차별화된 성장 추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노무라금융투자 투자금융부문 신용식(사진) 前 한국 대표를 재무자문본부(Financial Advisory, FA) 전문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4 대 회계법인의 재무자문 본부가 글로벌 IB 의 한국대표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신용식 전문위원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씨티은행을 거쳤으며, 바클레이즈(Barclays) 증권 서울지점 지점장, 노무라금융투자 투자금융부문 (IBD) 한국 대표를 역임하며 국내 대기업과 주요 사모펀드들의 M&A 거래를 자문해온 M&A 자문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2011 년 전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재 브랜드 M&A 거래인 휠라코리아와 미래에셋 PE 컨소시엄의 12 억불 (약 1 조 6 천억원) 상당의 아쿠쉬네트 컴퍼니(Acushnet Company) 매수 자문, 2017 년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브랜드 M&A 거래인 베인캐피탈(Bain Capital) 및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이 보유한 29 억불 (약 3 조 8 천억원)상당의 카버코리아 지분의 유니레버(Unilever) 매각 자문 등 국내 M&A 시장에서 주요 랜드마크 거래들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2020 년까지 노무라 금융투자 투자금융부문 한국 대표로서 10 대그룹과 글로벌 및 국내 대형 사모펀드 등 한국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M&A 서비스를 이끌었습니다.

신용식 전문위원은 딜로이트 안진에 합류 후 M&A 자문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글로벌 IB 의 운영전략 및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벤치마크,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금융그룹에 대한 C-level 커버리지 강화, 지속 성장하는 사모펀드 고객들을 위한 자문역량의 강화 및 크로스보더 딜 기획 발굴 확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신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재무자문본부는 기존에 보유한 M&A 자문서비스 역량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외국계 IB 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축할 수 나갈 있도록 M&A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법인의 차별화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